

국제로타리3650지구 2017-18년도

제1회 로타리 신세대 워크샵, 무주 태권도원서 개최

인터랙트, 로타랙트, 클럽장학생, 로타리안 등 200명 참가,
Family Together – Healing, Leadership & Dream을 주제로
1월 29일~31일, 2박 3일간 멘토링 행사, 유동주 K.O.A 대표 특강,
신세대 페스티벌, 걸어서 태권도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2017-18년도 제1회 로타리 신세대 워크샵이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이순동 총재와 서창우 3지역대표, 박상진 신세대위원장, 김민태 로타랙트위원장, 경희수 인터랙트위원장, 김동규, 김구미 지구송리더 등 로타리안 10여명을 비롯, 인터랙터, 로타랙터, 로타리안 자녀, 클럽장학생, 인터랙트 지도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순동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로타리 신세대 워크샵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로타리 참여로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한 것”이라며 “워크샵을 통해 3650지구가 후원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갈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도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연수회는 3650지구 슬로건인 ‘패밀리 투게더’의 의미를 새기고, “Healing, Leadership & Dream”을 주제로 인간관계, 여행, 진로 등을 소재로 각 조별 토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토의 결과를 각 조별 UCC 영상물로 만들어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 첫째날인 1월 29일 개회식에서는 박상진 신세대위원장의 개회사, 경희수 인터랙트위원장과 김민태 로타렉트 위원장의 축사, 인터랙트 지도교사 협의회 임원 이



(좌부터) 서청우 3지역대표, 김종현 태권도원 사무총장, 이순동 총재





취임식, 감사패 전달, 신임 회장, 총무 위촉장 전달, 김재정 로타랙트 지구대표 장학금 전달식, 로타랙트 및 인터랙트 활동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3650지구가 배출한 2008-10년도 로타리재단 세계평화장학생 출신인 유동주 소셜벤처 K.O.A 대표를 초청하여 특별강연과 질의응답의 시간이 마련됐다.

1월 30일 대회 둘째날에는 오전에 개최 장소인 무주 태권도원의 세계태권도 경기장,

태권도박물관, 전망대, 체험관 등 다양한 시설들을 견학하고 태권도 정신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둘째날 점심으로 서창우 3지역대표가 경영하는 (주)한국파파존스 피자에서 250명 분량의 피자과 음료를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제공했다.

또 둘째날 오후에는 이순동 총재와 참가자 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이순동 총재의 격려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로타리 신세대 지니어스 라는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또한 저녁 프로그램으로 지구송리더이자 팝페라 그룹인 김동규, 김구미 듀오아임의 인문학 콘서트를 가졌으며, 보성고 인터랙트클럽의 사물놀이 공연을 비롯하여 각 조별 장기자랑과 포스트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회원 간의 친목과 우정을 다지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울러 이순동 총재와 서창우 3지역대표는 태권도원을 방문한 기념으로 태권도원 김중헌 사무총장을 만나 로타리와의 사업연계와 함께 태권도 사범 및 교수진 등이 참여한 로타리클럽 창립에 관한 논의를 펼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대회 셋째날인 1월 31일에는 로타랙터들과 인터랙터들의 로타리 모멘트 스피치 시간이 큰 호응을 받았으며, 태권도

원에서 개최한 행사의 특성을 살려 격파용 송판을 이용하여 모든 회원들이 조별 롤링페이퍼를 작성하는 진풍경도 있었다.

이번 워크샵에 가장 뛰어난 활동을 펼친 참가자들에게 시상하는 최우수 참가자상은 이애리 회원(무악로타랙트클럽)과 장준 회원(서울용산 인터랙트클럽)이 수상했으며, 다양한 시상이 이뤄졌다. 이번에 개최된 제1회 로타리 신세대워크샵은 금회기 들어 3650지구 신세대위원회 각 위원장들과 인터랙트 지도교사, 로타랙트 지구임원들이 지난 8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갖고, 3650지구 신세대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전시켜 보자는 한 뜻으로 논의를 펼쳤고, 지난 11월 사전답사를 통해 개최 장소를 무주 태권도원 결정하고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우리 지구 34개 클럽이 성금을 후원했고, 각 클럽의 유력회원들이 많은 상품을 후원하는 등 3650지구 많은 클럽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신세대 워크샵에 참가한 로타리안들과 인터랙트 지도교사들의 기념촬영



제1회 로타리 신세대 워크샵을 후원해주신 분들

samyang
삼양사

PAPA JOHN'S
BETTER INGREDIENTS.
BETTER PIZZA.

안중근의사기념관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Hojeon Limited

(주)리코스스포츠에이전시
Leeco Sports Agency

鼎泰豐
DIN TAI FUNG

MOS BURGER

(주)한국파파존스피자 / 서창우 대표이사 (서울남산로타리클럽)
(주)삼양사 / 김량 삼양홀딩스 부회장 (서울남산로타리클럽)
(주)호전실업 / 박용철 대표이사 (서울한강로타리클럽)
모스버거코리아, 단다이평 / 주원석 대표 (서울새남로타리클럽)
안중근의사기념관 / 이영옥 관장 (서울상청로타리클럽)
(주)리코스스포츠에이전시 / 전옥경 회장 (서울중앙로타리클럽)
이예랑 대표이사 (서울코암로타리클럽)
건대부고 인터랙트클럽(지도교사 장만석)

무악 로타랙트 회장 이애리입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로 진행한 제1회 로타리 신세대 워크샵에서 180여명의 참가자중 최우수 로타랙터로 선정되어 이렇게 소감문을 작성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 임기가 끝났음에도 참가하게 된 이번 워크샵에서 13조 조장을 맡게 되어 처음에 부담감도 크고 걱정도 많이 되었었습니다. 우선 13조에 배정된 로타랙터들 중 처음 만나게 된 사람들이 많아 사전 조모임을 하기 전까지도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조모임에서 함께 밥을 먹고 얘기하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조장인 저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어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또한, 제가 고등학생인 인터랙터들과 잘 동화할 수

열정적인 참여, 얻는 것이 더 많은 신세대 워크샵

있을지도 하나의 큰 고민이었는데 인터랙터들 역시 상당히 밝고 저를 많이 따라주었습니다.

첫째 날 13조의 로타랙터들과 인터랙터들이 모여 진로, 인간관계와 여행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둘째 날 UCC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인간관계를 주제로 삼아 조별 토의시간에 서로 느끼는 인간관계에 대해 토론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1분 내로 인간관계를 잘 드러내는 UCC를 만들까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요즘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인 SNL의 3분 시리즈를 패러디하여 3분 친구를 큰 주제로 삼고 '항상 새로운 친구를 원하기 보다는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여기자' 라는 소주제로 UCC방향을 잡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틀을 다 정하고 난 후 UCC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역지로 떠맡아서 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하고 싶은 역할이 많아 의견조정을 할 만큼 로타랙터, 인터랙터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UCC컨셉의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보는 재미 요소가 많이 생긴 것 같아 발표 후에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 2학기 때 처음으로 무악 로타랙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가 대외활동을 열심히 참여하고 회장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알차게 로타랙트 생활을 하다 보니 이번에 얻어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던 제 로타랙트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신세대 워크샵을 통하여 로타랙터들 뿐만이 아니라 인터랙터들과의 좋은 인연도 만들어가는 것 같아 더 기억에 남을 대외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1회 로타리 신세대 워크샵을 기획하고 참여해주신 이순동 총재님과 여러 로타리안 여러분들, 인터랙트 지도 교사님들께 감사드리며 2박 3일 내내 행사를 진행하느라 고생한 김재정 로타랙트 지구대표 및 현 지구임원들과 차기 지구임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번 워크샵에 참여한 로타랙트 회장단들 및 로타랙터, 인터랙터 모두 뜻깊고 잊지 못할 시간 보내셨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최우수 로타랙터 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무악로타랙트클럽 회장 이애리
신세대워크샵 최우수 로타랙터 참가상 수상



좋은 사람들을 만나 감사하고 소중했던 2박 3일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 3650지구 로타랙트와 인터랙트가 함께 신세대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첫째날에는 많은 일정들이 있었는데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유동주 케이오에이 대표님의 강연은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직업을 찾는 것보다 직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주 의미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멘토링 주제 조별토의 시간에는 인터랙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것 같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한 후 진행된 우정의 시간은 멘토링 때 조금 어색했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머리를 모아 생각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더욱 조원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더 알찬 일정이 진행되었는데 오전에 진행한 태권도원 관람을 통해 태권도원에서 세계 각국이 모여 경기를 열기도 하고 선수들이 훈련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 번 태권도라는 스포츠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된 로타리 지니어스는 조원들이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일정이었습니다.

첫날에 이어 진행된 멘토링 시간은 인터랙트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다함께 머리를 모아 영상에 대해 논의하고 만들며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축하공연과 레크레이션 그리고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는데 이전 일정으로 힘들었을 텐데 모두가 재미있게 보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또한 인문학을 노래하시는 팍페라 가수 듀오아임의 이야기와 역사적 인물에 대한 노래를 직접적으로서서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멘토링 시간에 완성한 영상을 발표하였는데 우리조의 결과물이 생각보다 좋게 나온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조장으로 참여한 행사여서 많이 부족하고 서툴렀지만 또 한 번의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밥과 따뜻한 숙소에서 좋은 친구들과 보람찬 2박 3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행사를 진행한 로타랙트 지구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서울남산로타랙트클럽 회장 박윤주



신세대 워크샵의 행사 진행과 실무 기획을 총괄한 로타랙트 현직, 차기 임원들의 기념촬영

인터랙트에 들어와서 봉사활동 외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에도 참가하였다. 어린이날에는 다른 고등학교와 대학교 단체들과 연합하여 어린이대공원 페스티벌을 도왔고, 또한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김장봉사에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바로 이번에 참가한 '2018 로타리신세대워크샵'이었다.

신세대 워크샵은 6개의 고등학교 인터랙트 클럽과 많은 대학교 로타랙트 클럽 회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2박 3일 동안 진행된 행사이다. 비록 워크샵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전혀 어색함 없이 함께 어울려 많은 활동을 즐겼다. 나처럼 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 즐거웠고, 여러모로 유익했으며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워크샵의 첫날은 조원들과 친해지기 활동 위주로 진행되었다. 11조였던 나는 새로 만난 조원들과 함께 미션들과 게임을 통해 더욱 더 친해졌다.

둘째 날 이른 아침 조원들과 함께 태권도원에 있는 태권도 박물관 같은 시설들을 관람하였다. 케이블카에 탑승하여 태권도원의



인터랙트 활동을 하며 가장 보람됐던 신세대 워크샵 참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점심식사 이후엔 '로타리 지니어스'라는 조별 단체 미션을 진행하였다. 조 끼리 수많은 대결과 게임을 통해 승패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우리 조가 이기지는 못하였다.

재밌는 활동을 마치고 이어서 조원들과 함께 인관관계라는 주제로 ucc 영상을 촬영하며 발표를 준비하였다. 저녁에는 모두가 기대하던 로타리 페스티벌이 진행 되었는데 이시간은 레크레이션, 축하공연과 장기자랑이 진행되었다. 우리학교 학생이 장기자랑에서 2등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은 인터랙트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스피치를 하게 되어 부담이 다소 컸지만 참가자 모두가 호응을 잘해주어 긴장하지 않고 스피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랙트 우수 학생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었고 무척 기뻐다.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에 더 많은 인터랙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봉사라는 것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멘토링을 통하여 진로와 인관관계에 관한 고민거리를 나누며 진심이 담긴 상담과 답변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준 대학생 로타랙트 형, 누나들과 나의 삶에 커다란 밑거름이 된 '2018 로타리신세대워크샵'을 마련해준 국제로타리 3650지구에 감사드린다.

글. 건대부고 인터랙트클럽 회장 손지혁

